

# 2024 화장품 분야 주요 정책 추진방안

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
김민우 사무관

# 목차

- 주요 정책 추진 방향
- 규제개선 추진
-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추진
- 표시기재 관련 제도 도입
- 기타

# 올해 화장품 정책,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까요?

## ● 주요 목표

안전관리 선진화를 통한 국제기준 선도 및 산업육성 지원

## ● 주요 전략

1. 과학으로 더 신뢰받는 선제적 안전망 구현
2. ‘누구나! 언제나!’ 원하는 대로 누리는 안전복지 구현
3. 현장의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규제혁신

# 과학으로 더 신뢰받는 선제적 안전망 구현

-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기반 마련 및 수출 집중 지원  
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확대 개최  
국내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규제 정보 제공 강화  
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기반 마련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
- 유통 화장품 안전 및 품질 강화로 소비자 안심 확보  
국내외 연구자료, 규제동향을 반영한 원료 위해 평가 추진  
화장품 민간 인체적용 시험기관 자율 관리를 통한 신뢰성 제고  
유통 화장품의 품질 검사 및 소비자 대상 화장품 안전 사용 교육

# ‘누구나! 언제나!’ 원하는 대로 누리는 안전복지 구현

- 화장품 e-라벨 사업 등 표시·광고 개선  
‘화장품 e-라벨 시범 사업’으로 자원절약 및 소비자 가독성 향상  
화장품 외부포장 표시기재 개선
-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화장품 맞춤형 관리  
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분류  
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용량 화장품의 표시·기재 의무 강화

# 현장의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규제혁신

- 규제개선 및 산업지원을 위한 상시 소통창구 ‘점프업 K-코스메틱’ 지속 운영  
제도, 안전, 기준·심사, 제조·품질, 자격·교육 5개 분과 정부, 업계 및 유관기관(약 80명)  
표시·광고 TF 추가 구성
- 규제개선 과제 추진  
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염모제 허용  
표시 광고되는 각종 인증 기관 신뢰성 기준의 자율화  
사용금지 원료에 대한 해제 신청절차 신설  
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매장(샴푸, 린스, 바디워시, 액체비누) 허용

# 규제개선 추진(1)

- 규제개선 2.0(작년도 추진경과)

화장품 수출지원을 위한 규제 정보 제공

- 국외 규제 관련 정보 및 교육 제공('23)
-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('23.11.20~21, 일본·도쿄) 등 추진

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로 소비자 제품 선택권 확대

- 색소의 시험방법을 최신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으로 운영('23.9.21~)

# 규제개선 추진(2)

- 규제 개선 2.0(금년도 추진 과제)

‘화장품 e-라벨 시범사업’ 추진(3월 출시 예정)

화장품 인증에 대한 표시·광고의 자율화(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 중 - 상반기 예정)

국내 화장품 GMP 기준의 국제 기준과의 조화 추진(상반기 중)

자동 혼합기기와 연계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 심사 기준 정비(하반기)



# 규제개선 추진(3)

- 추가 규제 개선 과제(검토 중)

업계의 자정 노력인 표시·광고 자율심의에 대한 정부 지원

자원 재순환 확대를 위한 화장품 리필매장에 대한 자격기준 완화

#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추진(1)

- 도입 배경

미국, 유럽 등 주요 외국과의 규제 조화를 통한 소비자 안전 확보

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화장품 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

- 도입 시기

제도 정비 및 산업계의 준비 상황 등을 감안, 단계별 도입 추진(~'28 목표)

#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추진(2)

- 도입 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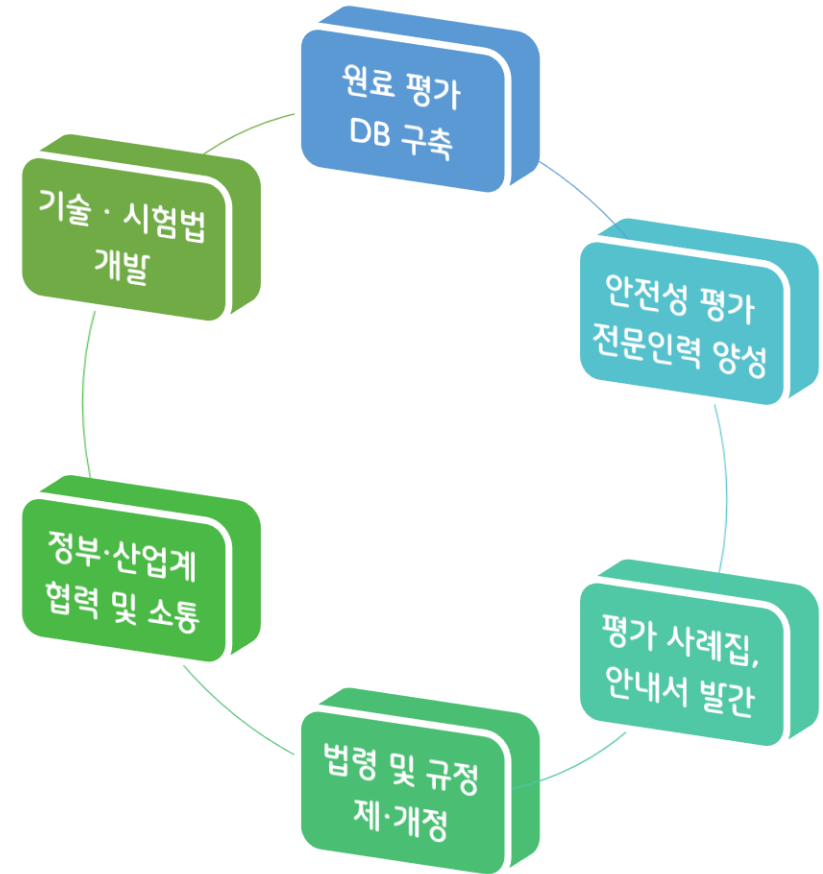
업체 스스로 자사의 화장품이 안전함을 입증하고  
관련 자료를 보유하여야 함

기술 및 평가인력 등 인프라 지원 병행

- 지원 체계

기초 자료인 원료별 안전성 평가자료 개발 · 수집  
· 공개(i.e. 범정부 플랫폼 운영)

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안내 자료 발간



#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추진(3)

-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(로드맵) 마련

기존 정부 주도로 금지성분과 제한성분만을 정하는 체계에서

업체의 자율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안전성 평가제로 전환을 위한 제반 계획 수립,

평가 대상과 관련 기준을 정한 법규 뿐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

- 의견 수렴 및 협의

점프업 협의체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의견 적극 수렴

# 화장품 기재 표시 기준 강화(1)

- 화장품법 제10조 개정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기 전 기재 · 표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문언을 보완
- 그간 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 항목을 화장품 영업자가 1차 포장과 2차 포장에 임의로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

# 화장품 기재 표시 기준 강화(2)

- 법 제10조 개정에 따른 기재 표시 세부 방안 마련
  - 법률상 총리령(시행규칙)으로 위임된 화장품 외부 포장의 세부 기재 표시 방법
  - 시행규칙 제19조, 별표5(예정)
    - 외부포장에 표시기재 하는 경우의 예외적 표시 방법(대상, 표시방법)  
예시) 외부가 투명하여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포장, 단순 운송용 상자, 첨부문서가 필요한 경우 등
    - 표시기재 간소화 품목(샘플, 소량포장)의 정보제공 방법

# 화장품 기재 표시 기준 강화(3)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이 기재·표시되어 있는 용기 또는 포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품목의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.

# 화장품 기재 표시 기준 강화(4)

- 소비자 안전이 우려되는 일부 소용량 화장품에 표시 간소화 제외 대상을 지정

\* (기존) 50ml 이하 제품은 일부 표시사항(주의사항, 전성분 등) 생략 가능

→ (개선) 식약처장이 정하는 화장품(속눈썹용 펌제, 외음부 세정제)은 표시사항  
전부를 기재



# 화장품 기재 표시 기준 강화(5)

- 표시 의무 강화 대상으로 속눈썹 펴제, 외음부 세정제 지정
- 식약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기재 · 표시 간소화 제외 대상 화장품으로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를 지정
  - ※ “외음부에만 사용하며, 질 내에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” 주의사항 신설(’22.6)
  - 에 따라 해당 내용이 소용량 외음부 세정제에도 반영되도록 조치
  - ※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

# 속눈썹 펴제를 화장품으로 지정

- “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” 유형 신설 및 안(眼)자극성 등 고려해 “가급적 자가 사용 자제” 등 소비자 주의 기재 문구 신설
  - ※ 그간 분류되지 않았던 속눈썹 펴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소비자에게 주의 사항의 안내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차원
  - ※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

# 화장품 e-라벨 시범사업 추진(1)

- 배경

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표시사항의 가독성을 높이는 한편, 업계의 포장재 자원 절약 및 창의적 디자인을 위한 기재 면적 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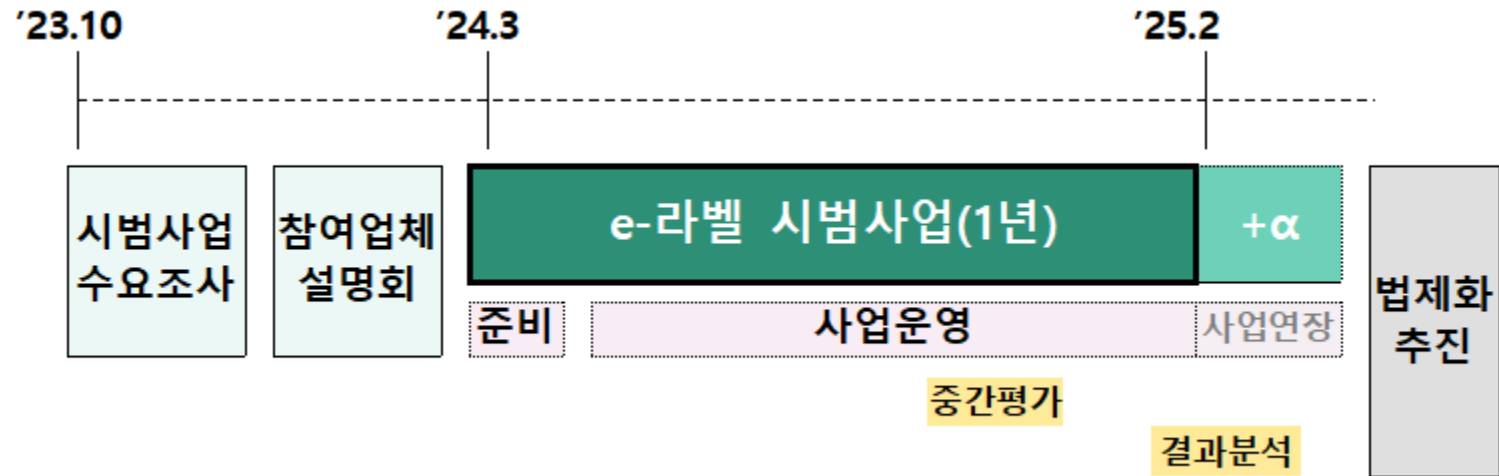
- 주요 내용

제품의 용기·포장에 주요 정보를 표시하고, e-라벨에는 모든 정보를 표시하여 전자적으로 제공

# 화장품 e-라벨 시범사업 추진(2)

- 사업기간 '24.3~'25.2월

1년 시행 후 법률개정·연장 여부 검토



# 화장품 e-라벨 시범사업 추진(3)

## 【현 행】

- ① 화장품 명칭
- ② 영업자 상호 및 주소
- ③ 제조에 사용된 성분
- ④ 내용물 용량
- ⑤ 제조번호
- ⑥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
- ⑦ 가격
- ⑧ “기능성화장품” 글자나 도안
- ⑨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
- ⑩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
  - 바코드
  - 기능성화장품 효능·효과, 용법·용량
  - 성분명이 제품명에 포함 시 함량
  - 세포배양액 포함 시 함량
  - 천연유기농 광고 시 원료 함량
  - 수입화장품 경우, 제조국, 제조회사명 및 소재지
  - 기능성화장품(탈모·여드름·피부장벽·튼살)  
“질병 예방, 치료 위한 의약품 아님”
  - 영유아·어린이 화장품 보존제 함량

## 【e-라벨 대상 제품】

- ① 화장품 명칭
- ② 영업자 상호, 전화번호, 홈페이지 주소
- ④ 내용물 용량
- ⑤ 제조번호
- ⑥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
- ⑦ 가격
- ⑧ “기능성화장품” 글자나 도안
- ⑩ 바코드
- ⑩ 기능성화장품의 효능·효과
- ⑩ 제조국, 제조회사명(수입화장품)
- ⑩ 기능성화장품(탈모·여드름·피부장벽·튼살)  
“질병 예방, 치료 위한 의약품 아님”

\* e-라벨에는 「화장품법」 제1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표시(가격, 제조번호, 사용기한 등 제외)

## ● 기재사항

점프업 민관 협의체를 통해 대상  
품목 및 사업 의견 조율

주요 정보는 제품에, 모든 정보는  
E-라벨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제공

# ‘점프업 K-코스메틱’ 민·관 협의체 운영

- 개설 취지

국민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 
목표로 규제 합리화 및 지원을 위한 소통 창구

- 구성

정부, 업계, 협회·연구원 등 유관기관 전문가 80명

- 운영

연간 논의 과제 발굴 및 지속 협의 추진(4월~)

